**선교적교회와 평신도 리더십**

**Missional Church and Lay Leadership**



**강사: 노 승 환 장 로**

**주예수교회장로**

**심장내과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1. **들어가는 말**
2. **단기 선교의 경험**
3. **지역 사회 선교의 Synergy 효과**
4.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에 필요한 요소들**
5. **주예수교회의 역사와 평신도 리더십 협력**
6. **들어가는 말**

제가 어렸을 때 결핵균이 저의 등뼈에 감염되어 그곳을 갉아내고 갈비뼈 부분을 이식하며 뼈를 심는 대수술을 받아 기적으로 꼽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지 아주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는 꿈을 가졌었고 의사가 된 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 그들로 질병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년동안 여러 차례 단기 의료선교를 다녀오고 최근에 지역 선교로 열심히 이웃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의대에 들어갈 때부터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지난 35년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해 왔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에 대한 도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1. **단기 선교의 경험**

그 동안 단기선교는 멕시코로부터 시작해서, 페루, 러시아, 도미니카 공화국, 파라과이, 케냐, 그리고 자메이카 등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단기 선교의 경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선교를 통해서 제가 많은 섬김을 베풀었다는 것보다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가 더 엄청나게 컸다는 것 입니다. 가장 축복중의 축복이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교에 감히 부족한 저 같은 사림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 곧 쓸모 있는 인생이라는 데서 오는 귀한 감사의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선교에서 얻은 경험을 개인적이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옆에 표에서 요약 된 것처럼

단기선교의 열매: 개인적 경험: 하나님은 은혜

* 선교비전 - 기도응답체험
* 더 확고한 미음 - 성령처험
* 현재의 삶에 감사 - 개인 직장일에 더욱 열심
* 은사활용
* 팀 사역

선교에 대한 시야가 우선 넓어지고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는 것을 체험하며 현재 개인의 삶의 풍족함에 감사가 넘칩니다. 은사가 활용되며 개인 직장 일에도 더욱 열심을 갖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고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도 되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적 열매도 많습니다

단기선교의 열매: 공동체적 경험: 교회의 생명력

* 선교비전 / 도전 - 제자양육
* 영성개발 - 선교의 성장
* 팀 사역 활성화 - 사역자 발굴

- 교회성장

단기 선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성이 넘치고 기도가 활발해지고 선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선교할 때 채워주시는 인적, 영적, 물질적 자원이 더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교회에 이런 은혜가 넘칠 때 전도도 되고 다른 선교의 사역자들이 발굴되어 더 많은 일꾼이 생기고 아무쪼록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고 건강하면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선교를 해 오는 동안 몇가지 주의 점도 아니 약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표에 여러가지로 적어보았는데 물론 이밖에 다른 주의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기선교 (주의점 / 약점)

* 단기선교 팀원간의 인간관계
* 현지 선교사와의 관계
* 언어장애 / 문화장애
* 팀원의 우월의식
* 선교의 기회가 모자람
* 단 기간의 의료 역부족

우선 단기선교는 일년 아니면 이 년에 겨우 일주일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애로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를 마친 후에 큰 허무함이 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선교의 목적은 현지 선교사의 선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함인데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의료나 진료는 장기간으로 되어야만 그 진료나 의료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끝내야만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1. **지역 사회 선교의 synergy 효과**

단기 선교의 삼각 관계에 볼 수 있듯이 이 삼각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지 선교사의 도움요청으로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선교의 열정에 따라 파송 교회가 단기 선교팀의 준비 여부를 보아서 짧은 기간에 현지 선교사에 도움에 응할 때 선교사역에 대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단기 선교를 해왔던 제가 지역사회 선교의 모델을 보았을 때 새로운 삼각관계의 모델을 정리한 것이 바로 지역사회 선교의 synergy관계 입니다

이 모델을 보면 교회는 곧 선교, 교인은 그리스도의 제자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지역은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교회는 제자들을 양육하여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의 은혜 충만함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통해 선교는 더욱 활성화되어 교회는 성장하고 더욱 건강하여 많은 제자를 배출하게 되는 synergy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우리 주예수교회의 지역사회 선교가 바로 이 synergy의 모델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꼭 준비된 제자들 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새 교우들도 주예수교회에 정식 교인이 되면 연령별 선교회로 나뉘어져서 조직되고 그 선교회가 담당하는 Monroe Park Soup Kitchen과 선교를 통해서 믿음과 교회 생활이 빨리 성숙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지역 선교를 중고등부와 2세도 포함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선교를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일년 내지는 이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단기선교의 기회를 놓칠 때 많이 힘들어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중 계속되는 선교에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먼로 공원 노숙자 음식 선교를 나가면 미래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같이 선교하는 것 같아 마음도 흐뭇하고 동시에 겸손해 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민 2세와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이런 사회봉사 / 지역 선교의 좋은 본을 보이며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의 미래에 큰 힘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1.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에 필요한 요소들**

주 예수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수가 되고 기초가 되는 요소는 바로 담임목사님의 리더십과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목사님을 모시고 동역해 오면서 목사님을 바라본 평신도 한 사람으로서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적 사명감을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소개해 드리고 또한 왜 목회 철학이 가장 중요한 요소 인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교회내의 제직 수련회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해 강의한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을 한자로

**신본주의:** 믿을 신 하나님, 본질에서 본 말씀,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의 정의를 뜻합니다

사실 30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30대 초반이셨을 때 교회는 신본주의를 의지하며 교회내의 인본주의 요소들은 배척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소강석 목사님의 신정주의 책이 나오기 15년 이상 앞섰던 말씀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목회 철학

**신** 하나님 중심

**본** 본질(말씀) 중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

**의** 정의와 사랑

**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우선권과 주 예수 밖에 귀한 것이 없네

**본**: 본질이 되는 복음; 말씀 중심 그래서 설교 말씀이 복음 적이며 동시에 사회를 경종하는 예언적 말씀

**주**: 온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올바른 제자로 양육 훈련하여 참다운 주님의 제자화

**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정의와 사랑의 사도들이 되는 것

목사님께서 이처럼 목회 철학이 아주 투철하여서 교회 초창기 때부터 교회가 존재하는 참 이유와 본질 회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아직도 강단에서 사회 윤리와 기독교인들의 의로운 삶의 자세를 위해 피를 토하실 정도로 최선을 다하시고 지역사회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모습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행으로 저도 담임 목사님 목회철학 사행시를 적어보았습니다.

담임목사님의 목회 철학 사행시

**신** 신실하신 하나님 중심의 사자가

**본** 본질되는 복음적 몸부림을 동원하여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을 양육하여

**의** 의의 사도로 이웃과 세상에 보낸다

선교가 이러한 목회 철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선교적 교회 공동체 사명에서 중요한 요소를 뽑으라면 저로 선교를 뒷받침하는 아낌없는 투자가 생각 됩니다. 주 예수 교회의 지난 17년 간의 여러 선교사역의 열매를 보면 선교를 위한 투자의 열매였다고 봅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준비되어 왔고 교인들이 그 방향으로 준비된 상태라 하더라도 재정적인 투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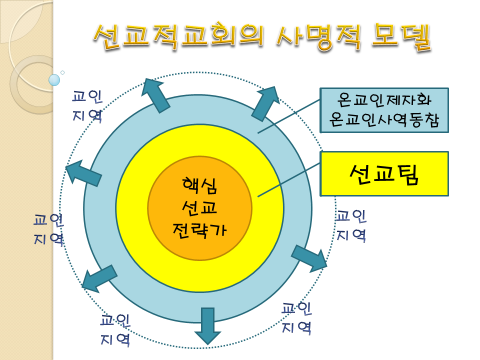
주 예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지역 선교로 표창을 받고 선교적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교회 개척부터 교회의 재정 1/3을 선교에 투자하도록 결정하고 시작한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어느 단체가 선교 후원금을 요청하면 한번도 거절하지 않고 도와 왔습니다. 거의 매달 재정 예산 결산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영국의 고아원 선교를 해온 죠지 뮬러의 기도가 생각난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매달 수입과 지출이 딱 맞추도록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할 수 있다면 거의 예산의 1/3을 선교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수 많은 선교후원 사역들, 파송과 후원 선교사님들, 단기선교 사역들 그리고 선교후원 단체들이 큰 힘을 얻어왔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재정이 어려웠던 개척 소형교회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로 비전을 주시고 선교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선 교회가 작을 때 어려운 이웃을 좀 더 알게 되고 소외된 그들을 접하기 쉬웠고 선교 후원금을 책정하고 결정하기에 다른 큰 프로그램이 없었던 때라 수월하였으며 교회 교인들 전체가 선교로 관심을 모으기에 아주 적절했던 것 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대형교회 또는 기존 교회가 오히려 선교적 교회로 탈바꿈하기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척 초창기 소형 교회라 해서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때가 선교적 교회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선교에 많은 투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열매가 있을 것 입니다.

셋째로 중요한 요소는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적 사명감을 품고서 선교 전선에 뛰어 나가는 교인들의 동력입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담임목사님의 전략이 소개 되었고 지난 17년간 지역선교에 같이 앞장서서 솔선수범 하며 충성해온 박태은 장로님의 간증이 있었다.

선교 동력 자원 발굴에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 나름의 소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았습니다.

* 핵심 선교 전략가의 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목사님이 아니라면 선교 담당 교역자가 지역사회에 잘 맞는 꼭 도움이 필요한 선교 대상을(이웃을) 찾아보는 중요한 발판 작업입니다.
* 연령별 선교회 별로 돌아가면서 사역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 처음부터 아주 새로운 선교방안을 구상하기 쉽지 않으므로 선교 기관이나 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선교를 같이 연계해서 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선교를 시작해서 온 교인들이 함께 자원봉사로 시작할 수 있는 지역 선교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World Hunger Day, 헌혈, 먼로 공원 노숙자 음식 선교 같은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사는 다인종 / 다문화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선교 – 다문화 전 교우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함께 다문화 사회 지역 선교에 참여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제가 생각해 본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적 사명 적 모델입니다



1. **주예수교회의 역사와 평신도 리더십 협력**

주예수교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분명한 목적에 따라 인도되는 교회입니다. Mark Twain의 명언들 중의 하나인 “인생중에 가장 중요한 두 날짜가 있는데, 하나는 태어난 생일이고 둘째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라” 했습니다. 주예수 교회의 설립날인 11월 첫째 주일과 둘째로 이 봄날에 선교적교회 세미나를 개최한 날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예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하에 선교적교회로 세우셨고, 그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선교해오면서 살다보이 귀한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열어 저희 교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두번째로 중요한 날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선교적 교회의 비전과 주예수교회를 통한 실제와 리더십 협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이웃들의 교회들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복음화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선포하며 함께 배우는 이 세미나의 기간이 바로 주예수교회의 둘째 날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예수교회의 짧은 17년의 지나온 여정들을 평신도 지도자로서 돌이켜 볼 때 참으로 파란만장한 세월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을 소개하면서 주예수교회의 역사적 실제를 소개하고, 바라기는 그 실제들이 여러 교회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만을 바라는 바입니다.

주예수교회는 1999년 11월 첫째주에 9개월 동안의 상상을 초월하는 심한 고통의 기간을 거쳐 두교회가 나누어져 생긴 교회입니다. 마지막 상황에서 저희가 떠난 교인들이 예배후에 데모를 하는 처참한 주일들을 목격한 저희들은 마치 해산하는 막바지의 고통을 당해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노회의 공식 주관하에 깨끗하게 두교회로 나뉘어져 세워졌습니다. 연필 한 자루 갖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에서 기도하고 설교한 대로 평화스러운 공존을 기대하면서 교회 예배 처소가 없는 County Park에 모여서 첫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수년간 저희가 떠나온 교회로 부터 받아온 수많은 수모와 극심한 역경은 이미 이제는 잘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당장 교회건물, 예배드릴 장소, 교재등 수많은 어려운 물자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어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보다 더 힘든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렵게 해산해서 새로이 탄생한 아기를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개척 공신주의 사상이 내면적 상황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개척해서 나온 교인들은 사실 오합지졸 같아서 주일마다 수없이 크고작은 잡음들이 생겼고,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들은 없고, 오히려 굴러들어온 돌이 먼저 자리잡은 돌들을 쳐내서는 안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등, 창립 맴버라는 교만에 가득차있었던 개척공신들이 기득권 행세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장로 자리에 인선되는데 대한 시기로 집사들 중 여럿이 야합하는 혼란 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에 당회는 집사회를 해체해서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개척 공신 주의자들은 교회내에서 이간질과 파벌을 일으켜 두 지도자들을 세워 예배 후에 당회 서기였던 저에게 찾아와 불만을 토하고 윽박적인 발언을 할 때는 주일마다 예배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불안함도 많았습니다.

어느날 아침 묵상시간에 주신 마태복음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하라” 의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참새하나의 생명도 아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로는 전혀 주일 날 마음이 눌리는 일도 없고 평일에 잠도 평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엌에서 일어난 여 선교회원들이 서로 다툼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들이 개척해서 나온 교회로 다시 돌아갔고, 주예수교회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몇 가정들이 교회를 떠난 후에 오히려 주예수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선교에 더 부흥 발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신도 한 사람으로서 그 때를 회고해 보니까 주예수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내걸고 개척했지만 교회안에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빨리 진단하여 때로는 비록 아픔을 겪더라도 암세포를 제거하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한 것은 잘 한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것을 잘 안 바울 선생은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귀한 사랑의 장을 남겼는데 제 생각에는 개개인의 사랑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교회안에서 올바른 교회 사랑에 대해 말한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교회안에 틀림없이 오래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며 시기하며 자랑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무례히 행하며, 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무리가 있는데, 건강한 교회 사랑을 위해서 고쳐야 한다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교회 사랑, 교회 비전과 뜻을 사랑, 담임 목사님을 사랑, 교회 공동체적 삶을 사랑하는 믿음직 스러운 평신도 지도력이 꼭 건강한 교회 회복에 지름길이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예수교회가 최근에 또 한번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는데, 서리집사직을 열어서 젊은 새로운 교인들을 등용해서 교회의 여러 사역을 돕기 위함으로 시작되었는데, 오히려 그 중에서 교회의 선교사역에 혼란을 주고 교회 제직 내에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가 주예수교회에 대 외적으로 선교의 큰 부흥의 불길이 붙었던 때였고, 제직들이 성도들과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참이라 모두들 땀을 흘리며 성실히 선교하는 겉 모양만 보고 다 선교적 교회 되기를 지향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사탄이 몇 서리 집사들을 시험했다고 봅니다. 그 몇 사람들은 결국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저희들은 오히려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그 의미와 비전을 다시 재조명 하는 계가 되었습니다. 이 때에도 이 어려움을 거쳐서 오히려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을 재 다짐하며 선교적교회로서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주예수교회가 거쳐온 과정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성장해온 평신도 리더십과 그 과정에서 얻은 선교적 교회로서의 양육의 열매들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확고한 리더십

사명자적 리더십

겸손한 리더십

**개척 (11월, 1999년)**

**2007년**

**2014년**

* 기득권 배제
* 교회사랑
* 교회의 본질 확립
* 목회자에 대한 신뢰
* 반세력 대항
* 굳건한 리더십
* 자신을 비우는 겸손
* 솔선수범 리더십
* 최선으로 헌신/헌금
* 모든 사역에서 앞장서는

실천

* 사랑과 정의 구현
* 굳건한 리더십
* 순종하는 리더십
* 선교적교회 사역협력
*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한인선교사 협력
* 미래시대 선교적 지도자 발굴